

포덕 160년

# 신년사



포덕 160(2019)년 1월 1일



포덕 160년

# 신년사



포덕 160(2019)년 1월 1일



# 식 순

1.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 문 3 회 병 송
1. 신 년 사
1. 합 동 배 례
1. 천 덕 송 합 창 ( )
1. 만 세 삼 창
1. 심 고
1. 폐 식

# 신년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교인 여러분, 올 한해도 지성으로 수도하고 도가마다 도인마다 한울님 감응이 무궁하여 만사여의 되기를 심고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에도 평화와 상생, 화합과 공영의 밝은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 첫날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무리 어둡고 괴로웠더라도 그리고 현실에 수많은 과제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버겁게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희망을 서로 권하고, 복락을 나누고, 아름답고 밝고 행복하고 정의로운 한해가 될 것임을 믿고, 약속해도 좋은 날입니다.

존경하는 천도교 동덕 여러분!

올해 우리 교단은 안팎으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많은 일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 천도교단의 지난 16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이미 국가 행사로서 준비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올해 그 추진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에 합의한 대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사업들을 전개한다면, 100년 전 의암성사의 영도 하에 진행되었던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와 세계사적 지평이 온 천하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00년 전의 3.1운동은 의암성사와 교단 지도자들이 동학 창도 이래 동학혁명을 비롯한 보국안민과 다

시개벽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자주와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정의와 인도를 기반으로 신세계를 기약한 신문명은 동이었습니다. 그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인적 역량을 조성한 것은 당시 수백만 천도교인 한 분 한 분의 살신성인하는 희생정신이었음을 우리는 가슴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천도교인들이 다시 한 번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그 뜻을 계승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 해가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3월에는 우리 교단 운영상 최대 행사인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현 집행부는 올해 3월로 만 3년 동안의 사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내세웠던 ‘대도중흥 중일변 민족통일’의 일대 슬로건, ‘포덕역량 구축’과 ‘포덕환경 조성’ ‘포덕광제 실현’의 3대 실천방안, 그리고 21개 항의



실천과제들은 모두가 천도교단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이었습니다.

현 집행부의 끝은 새로운 집행부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일찍이 의암성사께서는 물유시종(物有始終), 즉 일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으니 처음과 나중은 이치와 기운이 변화하여 스스로 되는 것이므로, 봄과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에 시들어 떨어지는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개벽(開闢)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여 마침이 없고 처음하여 다함이 없으니, 시작과 처음은 곧 내가 사는 무궁한 것이라.” 하셨으니, 이는 모두 처음과 끝이, 그리고 다시 끝과 처음이 무왕불복의 이치에 따라 서로 무궁히 순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뿌린 씨앗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꽃피고 열매 맺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우리 천도교에 중대한 변곡점을 이룰 사안은 바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천도교를 비롯한 전국의 동학 관련 단체는 마침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황토현 전승기념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행사는 천도교의 보국안민운동 양대 산맥이 모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되는 역사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천도교단에서는 그에 맞는 준비를 통하여, 올해를 대도 중흥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원년으로 삼아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올해 우리 교단에서는 경주 용담성지의 성역화와 해월신사 생가 터의 성역화를 비롯한 천도교 역사의 현장을 통하

여 백년 중일변의 교회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내천운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천도교의 시천주 진리와 사인여천의 윤리, 인내천 교리와 사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포덕 교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전개하고 있는 각종 특별 사업들에 대해 포덕교화 사업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업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흐름은 마치 개화기 당시 낡은 것과 새 것이 갈아드는 가운데 조변석개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던 국가 사회의 분위기가 일백년 만에 재연되는 것처럼 전후가 확연히 갈리고 신구가 달라지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의암성사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했던 것에 버금가는 대 변화를 예비하고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오늘의 시대와 스스로의 역량을 가늠해 보아 유효적절한 이 시대 천도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 세계 전역이 끝없이 연결되어 무궁히 소통하는 눈부신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오심즉여심의 마음문명, 동귀일체의 신세계문명, 다시개벽의 후천문명 등 이러한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천도교의 모든 역량과 천도교를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새해 첫날에는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낡은 껍질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날을 기약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기둥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동덕들끼리도 유쾌한 덕담을 마음껏 주고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만큼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금 다짐하고, 우리 교단이 나아갈 길을 위한 지혜를 한 소쿠리 더하고, 동귀일체 하는 마음으로 내 작은 정성을 모아 대도 중흥의 한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 여러분!

천도교는 창도 이래로 우리나라의 운수를 좋게 하는 길로 매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미래가 한울님의 조화로 성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운수는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반만년의 역사는 물론이고 특히 지난 일백년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온갖 고난을 거둬 하면서 쌓아왔던 덕행과 정의로운 운동의 결과로 인해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국운은 크게 빛나고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성운의 덕이 여러분 모두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새해 첫날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한울님 감응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심고하면서 신년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0(2019)년 1월 1일

천도교 교령 이정희 심고

## 제17장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악 마 도 망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덕 널 리널 리 퍼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온 누리 에 부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틀 올 리는 곳 에 궁 올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흥 초 록 봄 - 언 덕 에 온 갓 새 부르짖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한 이 - 품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 천도교중앙총부

110-7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번지(경운동88)

[www.chondogyo.or.kr](http://www.chondogyo.or.kr) [webmaster@chondogyo.or.kr](mailto: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